

## 교회소식

### ◆ 광고

1. 오늘 오후 예배는 신일비전현신예배로 드립니다.
2. 오늘 오후 예배 찬양은 할렐루야 찬양대입니다(연습2시:소망관).
3. 성례주일 : 11월 23일(넷째주일)  
학습 및 세례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셔서 문답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추수감사주일 기관별 성경퀴즈대회  
① 일시 : 2014.11.16일 주일 오후예배  
② 참가대상 : 각 전도회 및 청년말투스, 중고등부 (참가비 : 3만원)  
③ 시상 : 1등(15만원), 2등(10만원), 3등(5만원) ④ 퀴즈범위 : 사사기
5. 다음 주 2부 예배 후 각 기관 월례회로 모입니다.

### ※교인동정

- 식사대접 : 원웅국(김복금)장로 아버님의 장례에 베푸신 하나님의 위로와 성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전도용품 헌물 : 이은화 권사, 생명을 더욱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 ※교회 기도제목

1. 영혼구원하고 제자삼는 교회 되게 하소서.
2. 신일교회에 큰 부흥이 있는 한 해 되게 하소서.
3.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 되게 하소서.
4. 수능과 취업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을 위해서....

### ◆ 모임/청지기 안내

다음주일새벽찬양	금주 수요찬양	오늘 식사봉사	목장성경공부	전도특공대	중보기도학교	새가족성경공부
제 6여전도회	남5, 6목장	제3여전도회	각 목장별로	수요일 오전10:00	목요일 오전 10:30	주일2부예배후(각교실)

### ◆ 11월 행사

- 2일 : 신일비전현신예배
- 9일 : 각 기관 월례회
- 16일 : 추수감사주일(추수감사주일 기관별 성경퀴즈대회)
- 30일 : 정기당회

### ◆ 11월 안내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권유순, 정영주

### ◆ 11월 헌금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박순국, 오승엽, 박유연, 소재익, 이진석, 곽복남, 이정자

## 새 가족

번호	성명	목장	인도자	주소	전화	소속기관

## 주일낮예배

1부 : 오전 9시 인도 안 주 모 목사  
2부 : 오전11시 설교 안 주 모 목사

♣ 사도신경..... 다같이

♣ 찬 송 ..... 다같이  
새88장(구88장)  
새250장(구182장)  
주께 가오니

기 도 ..... 1부/양문주 장로  
2부/강일창 장로

성경말씀 ..... 인도자

빌립보서 2:12~16(신 P319)

찬 양 ..... 1부/호산나 찬양대  
2부/할렐루야찬양대

말씀선포 ..... 설교자

불평 없이 살아가기

기 도 ..... 설교자

찬 송 ..... 새532장(구323장) · 다같이

헌 금 ..... 다같이

감사와 축복 ..... 인도자

♣ 찬 송 ..... 주기도문송 ..... 다같이

♣ 축 도 ..... 담임목사

광 고 ..... 담임목사

✙ 다음주 기도 1부 / 박권용 장로  
2부 / 김제곤 장로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

## 주일오후예배

### 신일비전현신예배

오후 3시 인도 최사무엘 목사  
설교 안 주 모 목사

예배선언 ..... 인도자

다함께 찬양을...

기 도 ..... 박석문 집사

성경말씀 ..... 인도자

누가복음 4:38~39(신 P95)

찬 양 .....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선포 ..... 설교자

주님께 수종드는 사람

찬 양 ..... 새211장(구346장) ... 다같이

헌 금 ..... 다같이

광고/축도 ..... 담임목사

✙ 다음주 기도/ 박성용 집사

## 수요기도회

오후 7:00 인도 설교 최사무엘 목사

목 도 ..... 다같이

찬 송 ..... 새25장(구25장) ..... 다같이

기 도 ..... 이해련 집사

성경말씀 ..... 인도자

마태복음 6:9~13(신 P8)

말씀선포 ..... 설교자

기도 마지막은 찬송입니다

목장찬양 ..... 남5, 6 목장

축 도 ..... 인도자

기 도 회

✙ 다음주 찬양 / 남7, 8 목장

✙ 다음주 기도 / 김미화 집사

Since. 1978

No 44. 2014. 11. 2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대전신일교회

금년목표 : 지역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고후 5:17)

1. 전파하는 교회(전도, 선교)
2. 가르치는 교회(교육, 훈련)
3. 치료하는 교회(예배, 상담)
4. 봉사하는 교회(섬김, 나눔)

### ◆교회를 섬기는 분◆

담임목사 안주모  
부 목 사 최사무엘 최영준  
전 도 사 김금분 정기훈  
장 로 김제곤 강일창 박권용 우성한 김명권 양문주  
남동균 원웅국 박근용 안재경  
은퇴장로 이수영 정길원 정태수 윤선옥 우호선 김종남

찬양지휘 이육영 송명남 정기훈 윤현덕 조양순  
반 주 조성일 김진영 강경숙 김애숙 박채리 조수정  
기 악 윤현덕 김성욱 남정아 박채원

300-825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517번길 14(용전동)

TEL. (042) 622-7724(교회) 625-7724(목사관) 625-7723(당회실)

FAX. (042) 624-7721

www.no1shinil.org

## 초 대 합 니 다

### 1. 신일교회는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아픈 곳을 치료하는 교회, 섬김으로 봉사하는 교회로서 세상과 이웃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 2. 신일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지역사회와 연대를 가지고 구제와 장학사업 등 사회복지에 힘쓰며 가정사역, 치유사역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어 세상의 빛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3. 신일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 주역인 자녀들을 위해 교사정예화와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교육현장을 혁신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젊은이를 위한 찬양예배 활성화와 새가족양육, 부부성경공부, 제자훈련 등 각종 평신도 훈련과정을 통해 건강한 교회 만들기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 안 주 모

## 예 배 시 간

예 배	주 일 낮 예 배	1부/오전 9시, 2부/오전 11시	본 당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3시	본 당
	수 요 기 도 회	동절기/저녁 7시, 하절기/저녁 7시30분	본 당
	새 벽 기 도 회	새벽 5시	사 랑 관
		새벽 6시	사 랑 관
제 자 교 육	심 야 기 도 회	수요기도회 후	본 당
	수 요 전 도	수요일 오전 10시	소 망 관
	중 보 기 도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사 랑 관
	목 장 성 경 공 부	목장별로	각 교 실
	새가족성경공부	2부예배 후	각 교 실
주 일 학 교	유 치 부	주일 오전 9시	사 랑 관
	초 등 부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1층
	초 등 부 오후 예 배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중 고 등 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1층
	청 년 말 투 스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 우리가 돕는 교회 및 기관

- 협력선교사** : 인도/윤지원, 터키/곽동신, C국/오성학, 국내이주민/김복경, C국/하요한, 필리핀/박원재, 프랑스/박신호, 아르헨티나/윤춘식, 파라과이/이태호, 러시아/배성운, 국내선교부/남후수, 미얀마/김민, 태국/정규호, 차앙마이/인터넷방송, 필리핀 추수선학교/오일환, 인도구조르트/전미숙
- 미자립교회** : 의령삼일교회/의령, 덕신영광교회/울주, 지탄사랑교회/영동, 놀인교회/청송, 원당교회/영동, 아하교회/대전, 십자성교회/해운대 군인교회, 뽕엘교회/창원 군인교회, 힐령교회/김해
- 학원선교** : 대전충청지역 S.F.C. 간사/이성운 김예정
- 기관선교** : 극동방송국/대전, 웅달생드롭민센터/서울, 북한어린이 사랑의 빵/한민족복지재단, 고신장학회
- 문서선교** : 기독교보사, 월간고신사, 코람데오닷컴사

## 향기로운예물

### ✦ 십일조헌금

강현선(인회자), 경진형(이정자), 김대성(이주환), 김대운, 김명숙, 김영화, 김영민(함현숙), 남동균(윤현덕), 박권웅(곽복남), 박영숙, 박유연(박희남), 백춘현(엄임순), 손승희(신정혜), 양문주(권유순), 양요한, 오승엽(김영희), 우성환(정혜민), 우호선(김순자), 원덕목(김재욱), 원용국(김복금), 이상균(김상희), 이선환, 이성순, 이성중(신선화), 이수영(권월성), 이수영(권월성), 이영일(홍은미), 이은화, 이재익(김애숙), 이혜숙, 정유진, 조성철(이해련), 무명

### ✦ 감사헌금

강철원(이지영), 경진형(이정자), 김근보, 김명권(정영주), 김명숙, 김영화, 김영민(함현숙), 김재홍(한영자), 김종남, 김진은(김남주), 김채욱, 마주성(김선영), 박상임, 박석문(정민선), 박순국(조수정), 박은정, 박해진, 백춘현(엄임순), 소재익(김미화), 손승희, 신정혜, 안재경(장은숙), 안주모(조양순), 양문주(권유순), 오승엽(김영희), 오정석(정주희), 원용국(김복금), 윤성욱(김신혜), 이도화, 이상균(김상희), 이선환, 이성순, 이성중(신선화), 이수영(권월성), 이은정, 이은화, 이재익(김애숙), 이진석(윤혜진), 장진용, 정기훈(최연옥), 정옥근(이경미), 정유진, 정재만, 조성철(이해련), 최사무엘(서남지), 최영준(한은정), 한영실, 함돈수(곽정자)

### ✦ 선교헌금

강춘자, 강혜성(김성원), 김명권(정영주), 김영민(함현숙), 남동균(윤현덕), 최사무엘(서남지), 조성철(이해련), 박근웅(최원자), 박유연(백춘현(엄임순), 양문주(권유순), 원용국(김복금), 이도화, 이상균(김상희), 이성중(신선화), 이수영(권월성), 정옥근(이경미), 정태수(김정화), 최영준(한은정)

### ✦ 일천번제헌금

강혜성, 남동균(윤현덕), 남용민, 안스디(자민), 안영원(영인(혜민)), 안재경, 양문주(권유순), 이승민(엄서원), 이영일(홍은미), 이재현(리희), 정은숙(속(전형(진성), 정옥근(이경미), 무명

### ✦ 장학헌금

정옥근(이경미)

### ✦ 비전헌금

김영민(함현숙), 김영순A, 백춘현(엄임순), 손승희, 이상균(김상희), 이성중(신선화)

## 목장현황

2014. 10.20~10. 26

초원	목 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초원	목 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남1초원	1	김종남	교 회	2	12,000	10	교 회	여3초원	5	김채욱	교 회	3	7,000	18	교 회
	2	강일창	교 회	4	21,000	50	교 회		6	고숙자	교 회	2	4,000	21	교 회
남2초원	3	박근웅	교 회			교 회	여4초원	7	곽복남	교 회	4	15,000		교 회	
	4	김명권	교 회			교 회		8	성영옥	교 회	1	5,000	60	교 회	
남3초원	5	남동균	교 회	1	5,000	90	교 회	여5초원	9	구남량	교 회	4	12,000	12	교 회
	6	안재경	교 회	2	15,000	40	교 회		10	정혜민	교 회	1	5,000	10	교 회
남4초원	7	오승엽	교 회	2	5,000		교 회	여6초원	11	함현숙	교 회	2	10,000	22	교 회
	8	박순국	교 회	2	5,000		교 회		12	김복금	교 회	3	10,000	50	교 회
남5초원	9	조성철	교 회	1	10,000	3	교 회	여7초원	13	정옥자	교 회	1	5,000	25	교 회
	10	이인호	교 회				교 회		14	이경미	교 회	3	15,000	50	교 회
여2초원(실버)	1	김명자	교 회	2	10,000	90	교 회	여8초원	15	신윤경	교 회	3	5,000	14	교 회
	2	김명숙	교 회	3	9,000	60	교 회		16	김춘복	교 회	2	10,000	50	교 회
여2초원(실버)	3	권월성	교 회	4	13,000	100	교 회	여9초원	17	한은정	교 회	3	5,000	31	교 회
	4	정채순	교 회	4	11,000	80	교 회		18	서남지	교 회	6	10,000	25	교 회

## 금주의 말씀

## 불평 없이 살아가기

빌립보서 2:12~16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 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부터 잘못된 습관은 이처럼 고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 살버릇을 쉽게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 버릇은 고치기 힘들다. 그중에 고치기 힘든 버릇이 있습니다. 바로 불평입니다. 불평 의사전의 의미는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여러 사람에게 여긴, 또는 못마땅한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냄 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불평의 문을 차단하고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 1. 불평하는 이유

불평하는 이유가 사람마다 다르고 다양하겠지만 대체로 세 가지 이유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평하는 이유를 차단하면 됩니다.

#### 첫째로, 불평은 부정적인 생각과 말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행동을 일으킵니다. 말은 예언적인 힘이 있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하는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아무리 죽을 상황이라고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면 살아날 방법이 떠오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되는게 없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자성적 예언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기를 계속 찾습니다. 그리고 불평을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내 마음에 불평의 가리지를 뿌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야 합니다. 항상 긍정의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이것이 불평을 막는 중요한 길입니다.

#### 둘째로, 불평은 낮은 자존감 때문입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 항상 남을 의심합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자신이 상대보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약점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열등감에 휩싸이면 자신의 약점을 덮기 위해 남의 허물을 들추아냅니다.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남을 헐뜯음으로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남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 안에 있는 것에 대해 당당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 셋째로, 불평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는 곳마다 불평을 했을까?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43년간 종노릇 하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니까?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흥해를 건너서 광야의 길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은혜를 잊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이 찾아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고대해집니다. 고대해지면 불평이 많아집니다. 항상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감사와 찬송의 삶 사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명하십니다. 여기서 원망은 불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비는 악의적인 논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불평하거나 악의적으로 논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 빌립보 교회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 2. 불평 없이 살아가는 비결

사도 바울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첫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는 표현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의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쁘고 감사로 하고 합니다. 여기서의 성화 구원을 말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 둘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원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사 자기 기뻐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자기의 기뻐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붙잡고 사는 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누가 불평할까?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와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불평에 빠지는 것은 대부분 인생의 목표, 삶의 희망을 상실할 때입니다. 멀리 보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시는 목표를 향해 일어나 다시 걸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광야길은 불평의 길이지 찬양의 길, 감사의 길이지 절망의 길입니다.

#### 셋째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15-16절에 보시면 “너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나의 담음집이 되도록 하라” 하고 수도고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 한복판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속에 물들지 말고, 흠 없는 자녀로, 빛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휩싸이지 말고,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9절에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을 만들 수는 없지만 빛 되시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짝일 수는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가 나타나면 그곳에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으면 불평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어둠에 휩싸이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불평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마음속에 불만족은 누구에게 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입술에 불평으로 담아내지 마십시오. 자신에게든 가족에게든 이웃에게든 그 불평을 확산시키고 그들에게 불행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평의 말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을 입술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